

제 1 강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존재론

◆ 사르트르와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

▲ 강좌 소개와 진행방식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선과 상상적인 것’에 관한 강의의 첫 번째 주입니다. ‘시선과 상상적인 것’에 관해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철학자들은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부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도 ‘시선과 상상적인 것’에 관하여 훌륭한 이론이라든지 사색을 담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미켈 뒤프렌느(Mikel Dufrenne), 자끄 라캉(Jacques Lacan) 혹은 이 후기에 오는 사상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기회는 아무래도 사르트르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점에서 비교하는데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이번 강의는 사르트르의 시선과 상상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고 라캉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자끄 라캉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철학, 미학 쪽에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마침 자끄 라캉이 본인의 책에서 사르트르의 시선과 상상적인 것, 특히 시선에 관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자끄 라캉이 자신의 이론을 좀 더, 특히 그 중에서도 자끄 라캉이 말한 중요한 테마인 응시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필독서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사르트르와 자끄 라캉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더불어서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 그 이후 미학사에 나오는 미켈 뒤프렌느, 이들을 사색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공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첫 강의를 사르트르에게 있어서의 ‘시선과 상상적인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단순히 ‘시선과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것, 특히 나의 시선이 있다면 타자의 시선도 있는데, 나의 시선과 타자의 시선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시선의 문제는 이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주의 전통의 근대철학에 있어서 어떤 데카르트주의적인 영웅, 주체 중심적인 시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다면 주체 중심적인 시선과 사르트르가 자신의 철학에서 말하는 시선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렇다면 상상적인 것, 우리가 보통 사물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은 행위 하는데 있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공부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위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지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연주를 한다든가 모든 행위를 한다든가, 사실은 지각, 시선, 바라봄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 우리 행위활동 문제의 기초적인 것, 즉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바라봤을 때, 또 그리고 본다는 것에 의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상하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책상이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책상을 보면서 저는 이미 무엇인가 상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응시하고 있지만 그 사람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상하는 것과 지각하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 바로 이 문제도 이번 강의에서 다뤄 볼 주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의 시선과 상상적인 것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작품과 연결 지어 설명될 강의 - 회화 및 사진 작품들

여러분, 매번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면 이번에는 제가 강의계획서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고찰하면서 수업을 하겠다는 명시는 안했지만 아무래도 ‘시선과 상상적인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윤리학이나 다른 파트보다는 미학과 예술적인 것에 관계된, 그래서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작품을 보여 드릴 텐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각 작품은 가끔이고 회화 작품이나 (주로) 사진 작품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한테 배포해 드릴 유인물 자료 맨 앞에는 오늘은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을 주로 살펴볼지 명시해 뒀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작가를 가지고 예로 들 거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사르트르가 상상적인 것에 관하여 자신의 책에서 샤를르 8 세 초상 얘기를 하고 또 피에르 사진 얘기를 예로 들면서 상상적인 것은 실재가 아니라 비실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샤를르 8 세>보다는 티치아노(Vecellio Tiziano)의 <한 남자의 초상>이라는 작품하구요.

그렇다면 상상적인 것을 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조형 예술가들. 특히 미술가, 화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상상적인 것에 관하여 작업한 작가를 굳이 든다면 고전주의나 낭만주의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금 저랑 생각을 할 거 같은데)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실제 자기의 상상 얘기, 몽환적인 꿈의 세계라든가 몽상의 세계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로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나 달리(Salvador Dali) 같은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그리고 특히 사르트르가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에 관한 비평을 썼기 때문에 **자코메티의 조각 작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르트르에 앞서 실존주의 철학 이해하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시선의 본질을 어떻게 보냐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시선과 타자의 시선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고 하는 지각의 문제와 상상하는 것에 관한 관계**, 이 두 문제를 살펴보는데, 일단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의식의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르트르의 철학에 있어서는 후설(Edmund Husserl)의 지향성이라든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인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의식의 지향적 특징과 부정에 의한 어떤 결여를 특징으로 하는 주체의 시선이 결국은 암암리에 타자의 인정 욕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의 시선과 주체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상상적인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르트르에게 ‘시선과 상상적인 것’보다는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을 좀 더 개괄해야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거 같은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상가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Christian Kierkegaard)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인물에 속하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로서의 실존 문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후설 현상학에서 의식의 지향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인정에 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뒤에 가서 사르트르의 이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르트르는 하이데거한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세계 내 존재’로서의 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선구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진리에 맞서 주관성은 곧 진리이다.” 라는 명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이 아닌 실증론자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이 주관의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것. 주관과 상관없이 보편타당한 진리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을 바라다보고 그것과 관계된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결국 **주관성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것에 관해 적절히 말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고요.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특히 하이데거가 심도 있게 발전시킵니다. 결국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 모두가 **개별적으로 고유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물론 유사하고 보편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동일성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정말로 유일하고 고유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것부터가 개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별적인 주체로서 인간이 영유하는 삶의 양식, 즉 실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차이점. 모든 사람이 자라면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제도가 각기 틀리니까 각자가 자기의 고유한 실존 양식이 있는 거예요.

모두 살아있는, 실제로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시하는 것이 개별적인 고유한 삶의 양식이고, 그렇다면 각자 고유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기 본래성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유한 **자기 본래성**을 되찾는 것이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적용할 수 없고, 모든 주관성이라는 것은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불환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불환원성은 모두모두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고유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 본래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자유가 구속된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구속되는 것만큼 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계속 선택해야 되고,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것만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굉장한 진리나 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매순간 내 삶을 책임지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자유롭게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 문제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혹은 실존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실존주의와 생성의 자유

바로 실존이라는 것은 매순간 무엇인가 새롭게 생성하면서 생성과 더불어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에 걸맞게 항상 책임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을 뭐라고 했냐면 ‘사물처럼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생성하는 긴장상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실존이 딱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순간 나의 선택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점심을 뭘 먹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가운데 그것을 먹겠다고 선택함과 동시에 그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다른 장소에 갔을 때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다른 어떤 삶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매순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 가능한 어떤 그런 긴장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이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질이 먼저 있고 실존이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본질, 예컨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이나 이렇게 물어요. 특히 학생들은 그것에 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매순간순간을 실존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본질이 앞설 텐데 여기에는 반대로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은 뭐예요, 개념이나 원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관습은 어느 나라에도 있고 또 어느 민족에게나 그런 것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매순간 그것이 잠재적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나는 그것이 싫어요. 이거 하고 싶어.’라든가 아니면 꼭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꼭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안에 기투 되어 있다’, 이미 하이데거가 한 기투, 주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에서 이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쪽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애길 하는 거예요. 바로 본질이라는 건 합의에 의해 하나의 무엇이 본질이라는 것을 도출하는 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실존은 그런 본질에 앞서서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내가 선택에 의해서 규정하고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일상에서 무엇인가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자연현상은 물리적인 인과율에 의해 변화하지만 참된 생성과 실존은 자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현상은 어느 정도 인과율적인 변화가 따라와요. 갑자기 지금 아침이었다가 점심, 저녁으로 가는데 점심이었다가 거꾸로 아침으로 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실존이라는 것은 그런 인과율에 의해, ‘내가 지금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는 그것은 실존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동기계입니다. 물론 요즘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인공지능의 로봇이지만 그것 말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인형으로 가지고 놀던 그런 로봇, 예를 들면 태엽을 감아 준다는가 이랬을 때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서 ‘우리는 자유롭도록 처단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서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인간 존재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처단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만큼 불안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그 자유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고 거기 책임져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존재와 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유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超越)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 알 수 있으면 그걸 넘어 설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다르게 할 수 있고 그 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은 확실하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처해 있고 또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극단적으로 좌절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정신현상학에 대한 사르트르의 해석

▲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현존재’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유사한가 살펴보면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존재와 무』에서 존재적(ontique), 존재론적(ontologique)을 구분하는데, ‘존재적’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에서 ‘존재자’를 의미하고요, ‘존재론적’은 ‘존재’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도 물질적인 현전성을 가진 존재임이 틀림없으나, 우리 인간이 현실 속에 ‘있음’은 책상이 현실 속에 ‘있음’과 결코 동일할 수가 없어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Dasein(거기 Da 있는 Sein)이라고 명명했는데, 사르트르는 이것을 *etre-la* 로 번역했고, 인간만이 존재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존재’라고 불렀어요. 동물이라든가 의자와 같은 다른 존재자들은 현존재자라고 하지 않고요. 인간만을 ‘현존재’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문제 삼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존재를 실존,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라 하고 있고.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 부제를 붙였는데, **현상학적 존재론**이라고 붙였습니다.

결국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모두 실존주의 철학은 ‘현상학’에 근거하고 있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존재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존재의미를 밝히려 했다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존재방식이 아니고 주된 관심이 ‘의식구조’에 있었어요. (거기 써드린 것처럼)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을 ‘시간’을 통해서, 사르트르는 ‘의식구조’를 통해 밝히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후설, 의식의 지향성과 구조

그렇다면 사르트르가 왜 의식구조로 현존재의 존재방식을 찾고 있느냐, 그건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지향적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후설이 결국 독일 현상학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엄밀한 학으로서의 현상학’이라는 것을 창안하게 된 장본인이라 하고요.

후설이 결국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나면, 무엇인가가 주어져있는, 실증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물들, 동시에 존재방식보다 ‘이러한 대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결국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느냐?’ 하는 것.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에서 중심이 되는 것, 특히 후설이 엄밀한 학으로서의 학을 주장하면서 중요시했던 것은 결국은 엄밀한 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불투명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게 없어야 해요.

본인이 수학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수학을 공부했고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로 철학도 수학처럼 명확한 것처럼 철학이란 학문도 명확하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똑똑 떨어질 수 있는가의 연구를 통해서 그럼 어떡해야 되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사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이 좀 더 투명하고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의식**이 된다면 엄밀한 학을 세우는 기본적인 근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의식의 투명한 구조이기 때문에 **후설이 행했던 것이 바로 환원이란 것을 통해 현상학적인 환원, 특히 선험적인 환원을 통해 얻게 되는 선험적인 주관성.**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뒤섞여 있어서 모호하거나 뭔가 혼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경험 이전에 선험적인 것인 주관성으로 돌아가서 명석판명해진 의식의 구조를, 의식이 바로 그렇다고 보면 의식이 어떤 대상을 갖다가 본질에 직관하게 되고 그런 의식이 써내려가는 철학이라는 것은 좀 더 엄밀하고 분명한 철학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로 후설의 현상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후설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주어져 있는 대상들보다 의식구조에 연구대상의 초점을 놓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은 무엇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를 보면서 동시에 저와 더불어서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의식은 예를 든다면 잠을 들어서 꿈을 꿀 때도 결국은 무언가를 지향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라고 할 때도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의식은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나의 욕망이라든가 의도, 나의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향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런 무의지적인 무의도, 무지향적인 것에 의해서도 무엇인가를 향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의식의 구조를 밝히면서 결국 **우리의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의식의 지향성, 구조에 대해서 후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 구조는 브렌타노(Franz Brentano)에게서 도입한 명제인데 결국 의식이라는 것은, **물론 브렌타노 같은 경우에 하나의 의식은 하나를 지향해요. 일대일의 정적인 관계라고 본다면 후설은 하나에서 하나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동적인 관계라고 보았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서 책상을 바라보면서 ‘책상으로 나의 의식이 향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의식이 저쪽으로 향할 때 나의 의식 작용이 거기 썩어 진 것처럼 그것이 바로 노에시스(noesis)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저쪽으로 향할 때의 의식작용이 노에시스라면 나의 의식이 향하고 있는 대상, 책상이라든가 하는 대상은 바로 감각적인 질료들, 힐레(Hyle)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료와 형상을 얘기할 때, 힐레와 모르페(Morphe) 얘기하면서 순수하게 감각적인 재료는 힐레고요.

나의 의식이 저기로 향하면서 내 의식작용과 감각적인 재료인 나무가 만나서 이루어진 의미체가 있어요. 내가 저 나무의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나무의자에 누가 앉거나 할 때 내가 저 나무의자를 바라보면서 나의 의식이 지향하면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의미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노에마(noema)입니다.

이렇게 의식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의식의 지향성 구조 속에서 의식작용과 질료가 만난 노에마가 형성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후설에게 현상학은 결국 대상에서부터 이것을 체험하는 주관적인 체험의

활동적 현상작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나 과제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곧 “대상을 직접 문제 삼지 않고 대상을 형성하는 지향작용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적 태도”라는 합니다.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어떤 지향적인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태도의 문제인데 이걸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 적용하게 됩니다.

▲ 사르트르의 실존적 주체와 생활세계의 현상학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 현상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이유는 실존주의란 비인칭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주체에 진리가 있음을 내세우는 철학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도가 중요하고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태도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실존주의가 각각 개별적이 사람마다의 본래적인 삶의 방식이 중요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현상학과 실존주의가 만나게 됩니다. **현상학이 실존주의에 의해 결합됐던 이유가 지향성, 어떤 지향에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볼 지향적 태도, 또 하나는 생활 세계. 결국 인간의 몸은 다른 사물에게 언제나 여기라는 방위중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지금,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은 저기가 되고 그곳이 되고, 그죠? 자기 몸의 중심에 따라 여기 지금에 따라 다른 방향이라든가 위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몸의 자발성, 결국 인간의 몸이 방위중심이 되면서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각자 개별적인 몸이고 개별적인 몸의 운동을 통해서 삶이라든가 세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세계예요.

생활세계라는 것은 내가 생활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의도에 따라 나에게 의미는 바뀌지만 내가 여기 지금 교실에 없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 교실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아니죠.

내가 없어도 이 교실은 존재하고,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네가 그런 공간이 없는 게 아니죠.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예요. 바로 생활세계라는 것은 우리 의식적인 것에 앞서 이미 주어져 있는 세계이고 이런 주어져 있는 세계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영역이고, 바로 사르트르가 후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몸을 지닌 우리가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실존적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후설에게서 의식의 지향적 구조를 빌려오지만 그는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 헤겔의 실존적 주체의 운동성

그렇다면 헤겔에서는 인정투쟁에 의한 자기인정이라는 이론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식의 지향성은 조금 이따가 하게 될 상상적인 것, 상상하는 의식과 중요한 문제이고요.

사르트르와 헤겔에서, 헤겔의 인정은 바로 시선, 타자의 시선 속에서 나의 주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인정의 문제와 관계됩니다.**

결국 후설보다 백년이나 앞선, 『정신현상학』을 통해 인간이 의식작용을 현상학적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분석한 것이 헤겔인데,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생(生)의 존재 양식을 운동성으로 파악한 『정신현상학』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자기의식에 관한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진리는 자기의식이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데, 헤겔을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변증법이죠. 정반합. 결국은 변증법 운동이라는 것도 의식의 자기 복귀, 의식의 자기 귀환하는 운동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헤겔은 하나의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식 자체는 대상을 자기 것으로 구성하려는 자기의식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지향하는 의식은 자기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자기의식으로 복귀하고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헤겔이 말하는 대상과의 지향적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의식이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식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중요시했고요. 예를 들어 타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인이나 이런 사람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인간은, 나의 본질을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이 이렇게 상대방으로 갔다가 나에게 오는, 나에게 대한 고민이고 나의 의식에 대한 나의 본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타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타인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주체와 객체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 헤겔의 인정투쟁 -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세계 속에서 만나는 타인 역시 또 다른 자기의식 속에서 보면 또 다른 자기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 나를 보기도 하지만,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은 이미 내가 아니고 나에게서 분열된 타자의 모습이고, 친구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당신 자신을 본다는 애기처럼 타자를 통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만난 타인 역시 자기의식이지만 두 자기의식이 마주보는 최초의 상태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인정만을 구하는 두 자기의식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정투쟁이다. 즉 하나의 자기의식이 또 다른 자기의식을 마주볼 때 그 사이에는 즉각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성립되고 타자에게 예속된 자기의식은 탈자되는 순간에 타자를 지양하여 그것을 자기화한다.” 즉, 타자를 본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통해서 도리어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나와 완전히 대등한 또 다른 자기의식에 의해 인정됨으로써만 보장되는데, 헤겔의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해방함으로써만 진정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인이 노예를 부려먹고 예속하고 자기 휘하에 두는 게 아니라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냐, 노예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식의 순환운동에 의해 자기가 결국 예속당하여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타자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타자부정은 자기부정이고 타자긍정은 자기긍정이 되기 때문이다.” 노예를 예속하다보면 노예에 있는 자기의식에 예속되는 거예요.

헤겔이 타인에게서 자기의식을 본다고 한 것처럼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면 노예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노예를 예속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예속된다는 뜻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타자가 자유로워지고 타자를 긍정해야지만 내가 자유로워지고 긍정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진리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영향을 받아서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 제 3 부의 대타존재에서 헤겔의 이러한 인간 상호관계, 자기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어 언급하고 있어요.

헤겔의 동등한 자기 즉,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공식은 **나의 인식이 자기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출현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자기의식이 발생하는 순간에 나는 나 자신과 완전무결하게 일치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나의 의식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진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보아야 하는 데 이때 타인은 자기의식의 확신이 진리가 되게 하는 매개수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자가 나의 또 다른 자기이기 때문에 즉, 대상화가 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타자에게 관심이 있고, 타자 속에서만 내가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럴 때만 타자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 주체와 타자의 긴장관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바라본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이야기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타자한테 정말 진정하게 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타자를 반영하게 주는 하나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게 사르트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자를 톨레랑스(tolerance)처럼 진정한 평등이나 진심으로 우러난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굉장한 **긴장 관계** 속에서 바라봐요.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타자는 나의 경쟁자이고 나와 항상 팽팽한 의식대결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사르트르가 말한 타자 속에서는 시선이 노려보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에서 말한 변증법적인 순환, 자기의식의 귀환 속에서 결국 우리가 노예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주인이 노예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지금 내가 주인이지만 나중에는 귀환해서 노예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에서 시선과 타자, 상상적인 것에 관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의식의 지향성과 무, 의식의 지향성에 관한 문제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의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견양하고 의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의식은 지향적인 구조이다.” 의식이 내재된 게 아니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초월적인 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풀을 증오한다는 것, 그것은 풀을 의식의 초월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나의 의식이 그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 사르트르가 말하는 의식의 부정성과 무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연 모든 의식은 무엇에 대해 의식을 할 때 자기에 대해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르트르에게는 중요해요.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의식은 세계와 세상에 대해 정립적 의식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됩니다. 특히 동물은 감각적인 것이 인간보다 훨씬

원초적으로 발달했는데,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담배를 개수를 셀 때조차도 담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세고 있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즉 대상에 대한 정립적인 의식은 자신에 대한 비정립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상에 대해 아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뭐냐면 대상에 관심을 쏠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제가 동물의 예를 든 것과 유사한데요, 그쪽으로 의식을 쏠다보면 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립적 의식은 인식은 아니지만 투명성 자체로 인해 모든 인식의 근원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기의식은 이렇게 항상 비반성적 의식이기만 한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생각할 때 거기에 100% 빠져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은 나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물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의도하는 것에만 열중한다면 **우리 의식은 지금 나의 의식이 거기로 가는가? 감(感)으로, 견양함으로 인해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 보다 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견양함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부정하는 의식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의식의 부정성과 무라는 얘기예요.

의식이 무엇을 생각함으로 인해 무엇을 부정함과 동시에 결국은 생각하면서 부정한다는 건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리가 생긴다는 건 틈이 생긴다는 것이고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은 그가 바라보면서 바라봄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반성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봄과 동시에 반성한다는 것은 대상과 내 의식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결여가 생기고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데 있어서 틈(=무)라는 어떤 공간이 있게 되고 의식이 대상에 밀착해서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함으로써 틈이 생겨서 거기서 빠져나와 초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의 무화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자존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을 견양하고 지양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틈이 생기고, 이러한 틈이 생겨서 무화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구조 자체는 이처럼 대상과 의식사이에 무의 측면을 보여주면 끊임없이 무를 분비하는 것이 대자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무』에서 반복되는 ‘지금 그러하지 않은 존재모습이고, 동시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존재’라는 이 구절은, 의식은 자신이 되기 위해 항상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헤겔이 생을 운동 속으로 파악한 변증법 체계에서 나타난 ‘결코 그 자신인 바의 것이 아니며 또한 언제나 우리는 그 자신이 아닌 바의 것’이라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한 실존주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자존재와 인간 객체, 타자의 시선

▲ 사르트르의 존재론 – 즉자와 대자, 잉여, 실존

의식의 무화작용, 의식에 있어서 무의 의미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존재를 항상 대자존재와 즉자존재로 양분한다는 거예요.

메를로퐁티나 미켈 뒤프렌느 쪽에서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칼로 딱 경계로 베어놓은 것처럼 성을 쌓은 것처럼 대자존재와 즉자존재로 나눌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공격받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대자는 대상을 앞에 놓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를 대자존재라고 하고, 즉자는 스스로 완전하고 만족한 존재라고 해서 인간을 제외한 일반 사물이나 물건들의 존재를 즉자존재라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존재론에서 즉자존재와 대자존재는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이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사르트르의 존재론에서는 중요한 두 문제를 짚고 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모든 존재의 잉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잉여라는 거죠.

뭐가 이렇게 남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존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에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 남아서 나타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없어서 부조리하기만 하다**. 그런 의미인데 존재론에서 중요한 의미는 모든 존재란 잉여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미래의 투기(=기투)하면서 창조해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꾸려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들은 있는 그대로 만족해요. 의자라든가 잔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스로 인생을 꾸려갈 순 없잖아요. 즉자적으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만들어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내가 보고 지각하는 대상과 우리의 존재란 다르다는 것이죠.

▲ 인간 의식의 ‘무화작용’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뭔가 만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의 존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지만 좀 더 잘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라며 지금 존재는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존재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사물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 자기 존재를 무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무화란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무화일 뿐만 아니라 의식이 지향하는 존재의 무화도 존재하므로, 대상에 대한 무화도 대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의식이 지향하는 세계에서부터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현실에 있지 않은 듯이 간주한다는 것으로 비현실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따가 살펴볼 ‘이미지라는 것은 비현실이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상태를 부정하고 결국은 이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를 비현실적인, 아닌 것처럼, 나의 현실은 조금 이따가 다른 곳에 혹은 상상 속에 나타날 것처럼 됩니다. 이처럼 **의식의 무화작용은 현실의 비현실화를 필연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 인간 존재의 ‘대자운동’ (디아스포라)

끊임없이 무화를 통해 변화하고 생성되지만 존재라는 것은 변화 속에 통일을 이루는 대자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해요. 계속 선택하지만, 어느 순간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이 특징을 사르트르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속으로 퍼져서 분산되어 있지만 대신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결속을 다질 때는 훨씬 더 통일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유대민족의 특징을 따서 디아스포라로 규정해요.

자기가 되고자 하는 총체성을 향해 스스로를 투사하는 대자존재, 우리 인간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자신의 의도나 총체성 같은 모든 것을 집어넣잖아요. 노력하는 행위나 열정이나 이런 거죠.

인간이 이런 대자존재, 대자운동인데 이런 운동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하는데, 결국 미래로 과거로 자신을 지양하는 대자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은 **탈정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항상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탈정지하는 것이 대자존재이고 인간존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즉자존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게 없죠.

여기 이 컵이 제가 건드려서 넘어뜨린다, 구겨버린다거나 하는 외부의 작용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긴 하지만 스스로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즉자존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자존재는 이러한 시간성에 따라 달라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즉자는 의식 밖의 의식, 나의 대자의식 밖에 그 자체로 있는 존재죠. 또 항상 똑같이 자신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즉자존재예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스스로 항상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틈과 결여 속의 대자존재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자기와 자기의 두 겹 분리가 특징입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해 생각해요. 저처럼 생각해 보세요. 본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반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함과 동시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이에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의식과 다른 걸 생각하는 의식 사이에 틈이 벌어지죠.

틈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무가 들어가고, 존재에 빈 존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의식을, 틈을 벌려놓고 거기에 무라는 존재의 공간을 만드는 게 의식, 대자존재, 대자의식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 때문에 인간은 세계에 대해 반성하고 나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틈에 의해서요. 그런데 틈도 없이 단단한 즉자존재는 항상 자신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 이 컵 안이 안 보일뿐이지, 여기서 보면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일어나서 보면 다 보여요. 뒤를 보고 싶으면 보면 되고,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고 단단한 덩어리를 즉자존재라 하고, 충만한 존재라 할 수 있어요. 즉자는 변화 없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자존재는 시간성에 의해서 존재가 변해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항상 나를 위해 발전을 시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현존재를 시간성으로 정의**하면서 시간과 존재를 굉장히 밀접하게 연구했습니다. 대존재는 가능성이 총만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물은 즉자, 의식은 대존재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존재를 사르트르는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끊임없이 가능성으로 열려있고, 끊임없이 열려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나를 의식하고 세계를 의식하면서 의식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 했죠.

무가 들어가면서 의식이 가능한데 바로 끊임없이 가능성,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빈 공간, 무, 결핍, 결여를 뜻해요. 인간은 결국 의식 안에 결여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고 변화무쌍한, 뭔가가 기약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결핍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 실존주의적 존재론에서 타자의 문제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화하는 의식, 부정하는 의식 속에서 시선은 무엇이며 시선 속에서 타자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존재와 무』 제 1 부, 제 2 부에서 나타나고 특히 제 3 부에서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무』 제 3 부는 나중에 라캉과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타자가 차지하고 있는 존재론적 지위(=위치)는 누군가 앞에서 느끼는 감정인 수치심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자신에게 느끼는 수치심조차도 나를 객체화한 결과, 즉 나를 타자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이고 또는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띈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건,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고 타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결과죠. 사실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닌 타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애길 하면 ‘너는 왜 남의 시선을 의식 하느냐, 네 생각대로 하지.’라고 합니다. 왜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냐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식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암암리에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어쩌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사르트르는 그것에 어떤 애길 더 했냐면 **타자의 시선은 정말 나 아닌 타자의 시선도 의식하지만 내가 나를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타자화시켰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시선이 타자의 시선으로 의식한다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타자의 시선에 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타자의 존재에 관한 문제와 나와 타자에 관한 문제에서 타자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바로 ‘시선’ 개념에 의해, **타자는 나를 바라보는 존재로**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끼리의 시선, 같은 인간이지만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즉자 대자가 아니라 대타, 지금의 이 시선의 문제는 결국 대타에 관한 문제예요. 내 앞에 있는 다른 타자에 관한 문제거든요.

▲ 주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타자의 시선

타자는 어떤 존재냐, 일단 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르트르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는 우리가 공원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 예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의 인형객체가 아닌 나와 동일한 한 명의 인간으로 평가할 때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 다른 사물이 덧붙여진 관계는 깨지고, 인간 객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형성됨으로서 그 결과 나는 세계 중심에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타자의 출현을 세계 내에 발생한 하나의 작은 균열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이 공간에 혼자 있다고 한다면 이 공간의 주체는 저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이고요.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공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서로 주체인가를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의식을 하는 가운데 그 시선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사르트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인형쯤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제가 여기 있는데 공 인형 같은 커다란 인형을 앉혀놓으면 나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니라 인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공간에서 주체의 시선은 나라고 보지 인형이라고 보진 않죠.

하지만 인형이 아니라 인간일 때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있다가 누군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의식을 하죠. 뒤에 앉아 있더라도 뒤통수가 따끔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애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하던 세계가 깨지면서 중심에서 상실돼요. 방금 얘기한 공원의 예를 들면, 공원에 사람이 지나감으로서 새 사람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러한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의 균열(=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나에게 있던,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그 사람 쪽으로 빨려 나가는 이것을 사르트르는 내출혈이라는 예를 드는데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 흘러가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내가 그를 응시하면서, 빠져나가는 나의 모든 것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그런 생각, 결국 그를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인형객체로 생각하면 내 안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멈춘다는 거죠.

인간객체를 인형객체로 파악을 한다면 내출혈은 응고가 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요. 타자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내 것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결국 타자의 시선과 나의 시선은 서로 우호적일 수가 없고 투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의견인데, 두 번째는 타자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타자로 중심이 이탈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쇠구멍으로 무언가 들여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나요.

발자국 소리 아니면 문소리나 소리가 나는데, 이때 소리는 재미있어요. 시선은 아니에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저쪽에서 나를 쳐다본다는 시선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저기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죠.

소리에 의해 뒤에 누군가 있고 결국 나라는 것은 인간객체가 아니라 저쪽으로 봤을 때 타자로 봤을 때 나는 인형객체, 나의 중심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내출혈이 시작되고 있고, 이러한 내출혈을 멈추게 하려면 내가 그쪽을 다시 타자가 아닌 인형으로 봐야하는 거죠.

결국 사르트르에게 중요한 것은 타자와 나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자고 했지만 이러한

인정보다는 항상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보죠.

우리에게 시선이라는 것은 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전을 의미하면서 주체의 의식 흐름을
꼬집어가고 사로잡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타자는 시선을 통해서 나를 객체화시키고 무장해제
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